못된 부자에 대한 상반된 쌤통심리

(욥기 18:1~21)

1.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3.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4.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5.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6.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7. 그의 활기찬 걸음이 피곤하여지고 그가 마련한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8. 이는 그의 발이 그물에 빠지고 올가미에 걸려들며
9. 그의 발 뒤꿈치는 덫에 치이고 그의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10. 그를 잡을 덫이 땅에 숨겨져 있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목에 있으며

오늘 말씀 중심으로 <못된 부자에 대한 상반된 쌤통심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못된 부자에 대한 상반된 쌤통심리'

독일어에 "샤덴프로이데(Schadenfreu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손해'라는 뜻의 샤덴과 '기쁨'이라는 뜻의 프로이데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손해가 기쁠 수 없고, 상실이 기쁠 수 없는데 서로 상반된 뜻의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바로 이 상실이 남의 상실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손해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샤덴프로이데가 우리나라 말로는 쌤통으로 번역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남의 손해나 상실에서 느끼는 나의 즐거움은 인간의 은밀한 본성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할 수는 없기에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납니다.

드라마를 볼 때에도 재미를 느끼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화가 날 정도로 못된 짓을 해대는 악역이 드라마의 마지막에서 무참하게 실패하고 패망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쾌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런 쌤통심리가 믿음과 연결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논리적인 역설이 성립됩니다. 실

제 믿음을 가졌을 때에 나타나는 일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역설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높은 관직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의 방법을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대답을 들은 부자청년은 근심하는 얼굴로 돌아갑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청년에게는 오히려 근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 뒤에 23~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어떤 논리적 역설이 성립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만약에 이 부자 청년에게 라이벌 의식을 느끼던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라이벌은 청년을 바라보며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청년이 돈을 벌면 벌수록 라이벌의 입장에서는 쌤통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돈을 벌어서 천국이 더 멀어지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라이벌이었다면 그 부자 청년의 재산이 탕진될 때에 쌤통으로 여길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부자 청년이 재산을 상실했다면 천국에 가까워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라이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위기를 느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제로 한다면 그가 안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는 마땅히 이런 반응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라이벌이 돈을 벌수록 천국에서는 멀어지니 쌤통인 것이고 돈을 못 벌어서 세상에서 망할수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해지니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는 천국이 지금 내게 살아있는 가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에는 오히려 쌤통입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리는 없겠지만 논리적인 구조가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마음으로 체감하고 계셨기 때문에 천국을 갖기 어려운 부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해서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쌤통심리가 완전히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닷의 두 번째 변론이 나옵니다. 빌닷은 화가 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렇게 소상하게 욥의 잘못을 알려주고 회개를 권유하였는데도, 욥은 받아들이기는커녕 자신들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로서 매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죄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태도를 보면서 빌닷의 마음에는 분노가 치솟았던 것입니다.

이 분노와 함께 빌닷의 숨겨졌던 속마음이 드러납니다. 앞서 말했던 샤덴프로이데의 마음 즉 쌤통으로 여기는 본성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이 변론 속에서 빌닷은 욥을 하나님을 모르는 자이고 악인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악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열거해 나가는데 지금 현재 욥에게 일어난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빌닷은 이렇게 욥을 쌤통으로 느끼며 한편으로는 끝없이 자신의 무오류를 주장하는 욥에게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빌닷의 논리가 잘못되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많은 의인들이 고난을 겪은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37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당했던 일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11~13절에는 사도바울이 자신의 형편에 대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 맞으며 정처가 없고 /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욥이 당한 것 같은 재앙은 빌닷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욥과 친구들의 변론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도움이 됩니다. 언뜻 보기에는 욥의 세 친구들의 말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닷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을 보면 욥 하나 때문에 인간 세상의 원칙이 변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땅이나 바위는 변함없이 견고하게 존속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삶에 관한 원칙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욥에게만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인은 재앙을 당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은 그러한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악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뜻 보아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빌닷이 전제로 삼고 있는 생각입니다.

빌닷에게는 욥이 재산을 잃은 것이 쌤통이었습니다. 그것이 악인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재산과 가족과 건강과 아내와 명성을 잃은 것을 보아하니 악인임에 틀림없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욥에게 시기를 느끼던 차에 쌤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 빌닷이 욥에게

쌤통을 느끼는 이유는 빌닷의 생각이 이 세상에 국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빌닷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도 믿음도 없던 자였습니다.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해도 해도 안 되어 왜 그런가를 살펴보았더니 사업하는 재미에 푹 빠져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권사님의 기도는 쌤통으로 여겨지는 일이 벌어지도록 자청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이 권사님의 마음은 이 세상 바깥에 있는 천국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세상 바깥의 세계를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이 허락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재산 건강 가족 명성이 아닌 하나님의 주체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를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욥을 향하여 빌닷이 쌤통심리를 느끼는 이유가 욥의 재산이 없어졌기 때문이라면 오히려 빌닷의 마음에서는 재산이 가장 큰 가치였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없어진 것을 쌤통으로 바라보았다면 빌닷의 마음에서 자녀가 가장 큰 가치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TV에서 뉴스를 보면서 빌닷과 같은 쌤통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84%라고 합니다.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야당에서는 배가 아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갑자기 50%대로 낮아진다면 쌤통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국민의 지지율이 가장 큰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쌤통의 심리를 보면 그 사람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고 믿는 다른 신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빌닷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쌤통심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재앙이 악인에게 마땅한 것으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며 욥을 악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욥에 대해 쌤통심리를 느끼는 빌닷이야 말로 재산과 가족과 건강과 사회적 명성 등을 가장 중요시하던 사람이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던 부자 청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청년이 돈을 벌면 벌수록 쌤통심리를 느껴야 진짜 천국을 살아있는 가치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주님을 살아계신 분으로서 관계하고 있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돈을 벌지 못하면 오히려 걱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불할 만한 가치들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지옥 갈 때에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느 것에도 마음을 지불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마음을 전부 하늘에 드려

서 이 세상에서는 지불할 마음의 잔액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가난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대로 말하자면 쌤통의 심리에서 역방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천국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살아있는 가치로 느끼고자 함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할 때에 내 마음에서는 돈을 잘 버는 부자를 볼 때에 빌닷과는 다르게 오히려 그들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천국을 가진 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을 살아있는 가치로 붙잡으면 실질적으로는 쌤통심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권사님과 같은 연민의 마음이 생길지언정 그것을 쌤통심리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바울이 재판장에서 아그립바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고관대작들에게 자기처럼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살아있는 가치로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정으로 그들이 망하기를 바랐다면 오히려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살아야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지로 천국 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던 것입니다. 오죽 했으면 남편의 사업이 망하기를 기도했겠습니까? 정말로 세상 가치를 잃고 하늘의 가치를 얻기 위해 아파할 때에는 오히려 공감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붙잡기에 유리한 자리로 옮겨지고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권사님의 그 기대에 맞추어서 남편 분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장로님까지 되셨습니다. 성경공부에서 직접 만나 뵈었던 분들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난에 대해서 쌤통심리를 느낀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승천하신 주님을 살아계신 가치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빌닷의 쌤통심리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는 라이벌 부자에게서 느끼는 쌤통심리는 항상 역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실제로 천국을 가진 자들에게는 쌤통심리가 없지만, 논리적으로 쌤통심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 믿음의 잘잘못을 분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쌤통심리를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천국과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살아계신 가치로 붙잡고 모셔 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